두산갤러리 서울은 권하윤의 개인전《LEVITATION》을 2018년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최한다. 권하윤은 2017년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작가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영상 작업을 통해 프랑스의 팔레 드 도쿄, 오스트리아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및 다양한 필름, 비디오 페스티벌에서 수상하였다.

《LEVITATION》은 권하윤의 국내 첫 개인전으로, 현실과 가상, 실제와 허구 사이의 경계를 다룬 영상작업을 선보인다. 전시제목 'Levitaion'은 물체가 공중으로 떠오르는 현상으로, 현실과 가상세계 사이의 경계를 탐구하는 권하윤의 작업세계를 드러낸다. 권하윤의 영상작업들은 대부분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기억과 이야기, 다양한 리서치의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이야기이다. 권하윤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구성하여, 이야기를 전달해주었던 사람과 보는 사람들 사이에 공동의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이 공간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게끔 이야기를 이어나가며 미지의 공간 속에서 생경한 감각들을 느끼게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VR을 사용하는 두 작품 <새 여인>, <489년>과 3D 에니메이션, 실사촬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영상작업들을 선보인다. 권하윤은 2015년 제작한 <489년>부터 VR 매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비무장지대 DMZ에서 군생활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현실 속 가상공간인 DMZ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고 이 가상의 공간을 VR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한다. <새 여인>은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기억 속 공간을 가상현실로 재현하고 관람객들이 이 공간을 직접 걸어 다니면서 그의 기억 안으로 지금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DMZ 안의 북한 마을이나 판문점 등을 다룬 영상작업을 통해, 실제로 거기에 있지만 다가갈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거나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다시 현재로 이끌어 내어 새롭고 낯선 시공간 경험을 제시하며 생경한 감각들 마주하게 한다.

권하윤(b.1981)은 프랑스 보자르 낭트 조형 예술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시각 예술을 석사 졸업하였으며, 프랑스 현대미술 스튜디오 르 프레누아를 석사 졸업하였다. 사토르 갤러리(2018, 파리, 프랑스), 팔레 드 도쿄(2017, 파리, 프랑스), 렉투르 포토그래피 아트센터(2016, 렉투르, 프랑스), 이도향 갤러리(2015, 파리, 프랑스), 샤토르 시립 미술학교(2015, 샤토르, 프랑스), 이도향 갤러리(2013, 파리, 프랑스)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2018 부산비엔날레(2018, 부산, 한국), 대안공간 루프(2018, 서울, 한국),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라이즈호텔(2018, 서울, 한국), 국립현대미술관(2017, 서울, 한국), 백남준아트센터(2017, 용인, 한국), MoMA(2017, 뉴욕시, 뉴욕주, 미국), 메이막 현대 아트센터(2016, 메이막, 프랑스), 서울시립미술관(2015, 서울, 한국), 아트선재센터(2015, 서울, 한국), 경기창작센터(2015, 서울, 한국), 제 1회 방돔트리엔날레(2015, 방돔, 프랑스), 2014 부산비엔날레(2014, 부산, 한국), 주드폼 국립미술관(2014, 파리, 프랑스) 외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